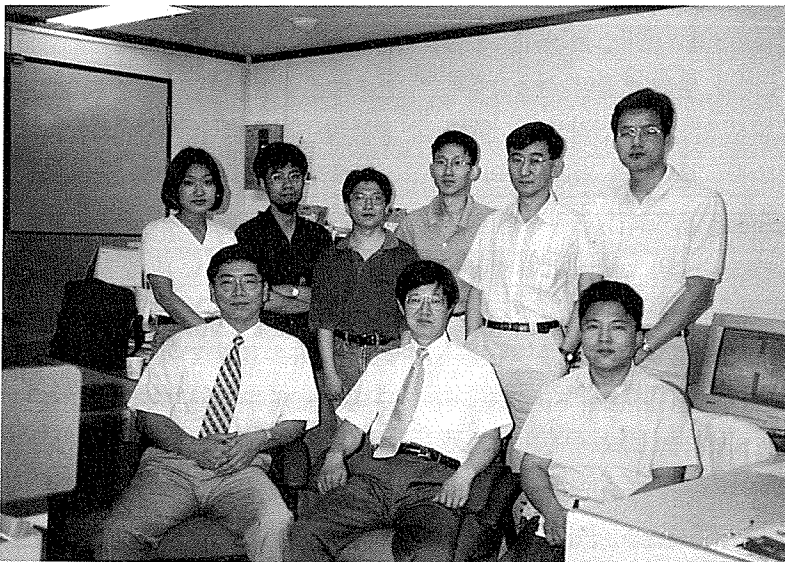




국내 불모 매킨토시용 S/W개발 (주)한맥소프트웨어

국내 유일의 매킨토시 전문업체 (주)한맥 소프트웨어는 창업 3년만에 「한맥워드1.0」에 이어 「한맥워드2.0」을 개발해 S/W분야에서 높은 로열티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한맥워드의 특징은 아래아한글에서 작성한 텍스트, 그림, 표 등을 그대로 한맥워드가 가져와 작업할 수 있고 반대로 한맥워드 문서를 아래아한글 파일로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 한맥소프트웨어 연구진들과 함께한 권순덕사장(앞줄 가운데)과 권순모이사(앞줄 좌에서 첫번째)

〈주)한맥소프트웨어(대표 권舜德)는 국내 유일의 매킨토시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이다. 93년 설립이래 올해로 3년째 접어든 한맥은 아직은 햇병아리지만 그 내용만큼은 어느 회사 못지 않게 알차다.

국내 불모지라 할 수 있는 매킨토시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로 설립된 한맥은 2년이란 개발기간을 거쳐 '한맥워드1.0'을 발표했다. 적어도 5년은 걸릴 것이라는 주위의 예상을 깨고 탄생한 '한맥워드1.0'은 예상기간보다 무려 3년이나 단축돼 출시됐지만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월등해 한맥측보다 오히려 주위에서 더욱 많은 격려와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고 권순모 이사는 귀띔했다.

그러나 한맥이 매킨토시용 S/W를 개발, 진가를 발휘하게 된 것은 아이라이트(I-WRITE)라는 제품을 일본에 출시하면서 부터이다.

일본 유통업체와 수출계약

2년이란 개발기간을 두고 작년 3월부터 출시한 한맥의 실제 판매량은 삼만카피정도. 그나마 국내 10만 PC사용자중 3%만이 매킨토시를 사용하는 사용자라고 볼 때 국내 시장보다 무려 25배나 더 큰 일본 시장을 공략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권이사는 전한다.

그러나 한맥의 기술력과 운때가 맞아 일본의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인 위닝런(winning run)사와 호조건으로 수출계약을 맺었다. 한맥에게 주어진 시간은 3개월. 이 기간 동안 한맥은 '한맥워드'를 바탕으로 일본 사용자들의 특성과 몇가지 조건에 맞는 일본어 버전을 만들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한맥은 일본과 수출 계약후 일본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고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을 겨냥하

여 HTML변환기능과 Mail기능 등을 지원한 아이라이트를 개발하여 96년 3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아래아한글 텍스트 그대로 작업

아이라이트는 판매되자마자 일본 맥 관련 잡지사들로부터 수많은 호평을 받았다. 일본의 맥피플 5월호에는 '인터넷이 핵심인 워프로'라는 제목아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기능과 스피드가 무엇보다 매력적"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개발과 영업을 함께 담당했던 권이사는 일본어가 우리나라와 같은 2바이트 문화권이고 그들이 원하는 편집과 모든 기능이 우리와 비슷해 개발이 다소 쉬웠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호평을 들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겸손해 했다.

그러나 한맥은 7월부터 시판될 '한맥워드 2.0'으로 다시 한번 맥사용자들과 주변관계자들에게 희망찬 기대를 던져주고 있다. 한맥워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무엇보다도 아래아한글에서 작성한 텍스트, 그림, 표까지 그대로 한맥워드로 가져와 작업할 수 있고, 반대로 한맥워드 문서를 아래아한글 파일로 저장하여 아래아한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동안 관공서, 학교 등에 제출하는 서류가 대부분 아래아한글 포맷인 관계로 맥사용자들이 겪어왔던 고충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다. 또한 통신을 이용하여 편지를 주고 받을 때 맥과 PC와 서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번의 변환작업을 감수해야 했던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맥을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무척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주)한맥 소프트웨어는 한맥워드뿐만 아니라 QuarkXTension도 5종을 개발 판매 중인데 오는 7월부터는 일본에서도 시판될 예정이라 한다. 일본의 소프트웨어 회사와 계약한 익스텐션은 [HX-파워실렉트][글로서리][소프트컷][인덱스/TOC] 등이다. 이중 '파워실렉트'는 현재 글자크기를 바꾸고 싶을 때 기존에는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를 클릭해서 포인트를 바꿨지만 이번에 개발된 이 기능으로는 바꾸고자 하는 글자를 한꺼번에 클릭해서 지정하기만 하면 된다.

한맥워드 2.0 값 대폭 인하

또한 편집을 해본 사람이라면 귀찮게 생각되는 목차만들기와 색인작업도 인덱스/TOC가 색인 항목이라 지정해 주면 이것이 책 전체의 몇페이지에 있는지 자동으로 체크해서 색인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손쉽게 편집작업을 할 수 있다.

쿼크익스텐션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계약체결을 했다. 일본의 경우도 매킨토시 S/W의 경우는 미국의 것을 카피하는 수준으로 기존에 있던 미국 제품보다 모든 편집기능이나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매우 평이 좋아 한맥의 제품이라면 어떤 제품이라도 판매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내용을 권이사는 자랑스럽게 전했다.

한맥워드 2.0버전은 한맥워드 1.0과는 달리 FAT버전으로 제작하여 단일 제품화하고 국내 매킨토시 시장을 활성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한다는 취지로 가격도 대폭 인하하여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판매가격은 일반용이 10만원, 학생용이 5만원. 이

것은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의 1/4 밖에 안되는 수준으로 로열티를 받아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선 한맥측이 맥사용자에게 보급하는 일종의 서비스이다.

한맥소프트웨어의 대표인 권순덕사는 국내 최초 워드프로세서1호인 보석글의 창시자인 동시에 예비고사를 컴퓨터로 채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WP에 있어선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는 일찍이 WP에 관심을 가지고 79년 도미, 공부하면서 WP전문 업체인 워드플렉스사에 근무, 귀국 후에는 삼보컴퓨터 상무를 거쳐 89년에는 매킨토시 총판인 엘렉스컴퓨터사로 옮긴 후 93년 4월에 한맥을 창업했다.

창업 3년만에 국내에선 드물게 S/W 분야에서 높은 로열티를 받아 외화를 벌어들이며 한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한맥은 내년에는 일본 맥시장, S/W시장, 마켓쉐어 15%를 점유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가지고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되는 중소기업이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

